

도서관주간에 대한 도서관 직원 인식조사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Survey of Library Staff on Library Week

심 효 정 (Hyojung Sim)*

노 영 희 (Younghee Noh)**

초 록

본 연구는 도서관주간에 대한 관중별 도서관 직원의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향후 법정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계가 검토해야 할 내용을 모색했다. 분석결과, 도서관 직원의 도서관주간 참여경험과 주최기관의 행사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부터 시행될 법정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 추진 시 중점사항으로는 도서관에 대한 국가적 홍보와 행사를 위한 충분한 예산지원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도서관 직원의 인식조사를 통해 향후 법정 도서관주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계 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 다양한 관중 참여 유도를 위한 타 관중과의 연계 협력 및 관중별 협의회 내 추진위원회 구성, 각종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언론 홍보, 예산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d the perceptions of library staff by type of library week through a survey and sought content that the library community should review to revitalize the legal library day and library week in the futur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library staff's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the library week and satisfaction with the event support of the host organization were low.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awareness of the legal library day and library week, which will be implemented from 2023, is quite low. There were many opinions about the national publicity of the library and sufficient budget support for the event as a focus for the promotion of Library Day and Library Week in the future. In order to effectively promote the legal library week in the future through an awareness survey of library staff, various efforts are made to improve the awareness of the library community, cooperation with other library types to induce participation in various types of institutions, and the formation of a promotion committee within the association for each type of library, and use of various media. It was confirmed that active media publicity and securing budget were necessary.

키워드: 도서관주간, 도서관법, 도서관의 날, 도서관 직원, 인식조사

Library week, Library act, Library Day, Library Staff, Perception Survey

* 건국대학교 지식콘텐츠연구소 책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강사(shjcap75@hanmail.net) (제1저자)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2년 5월 12일 논문심사일자 : 2022년 5월 23일 게재확정일자 : 2022년 6월 9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2): 33-54, 2022.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2.33.2.033>

※ Copyright © 2022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도서관의 중요성 등을 알리는 주요한 역할을 하는 도서관주간은 1964년부터 매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어 와 2022년 올해로 제 58회를 맞았다. 긴 역사를 가진 도서관주간이 2021년 12월 「도서관법」 전부개정으로 2023년부터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하고 그날로부터 1주간은 도서관주간이 될 예정이다.

1964년에 발표된 도서관주간 취지문에서는 도서관주간을 도서관이 국가의 문화와 교육 발전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널리 인식시키고 국민의 독서를 도와주는 커다란 연중행사의 하나이며 국민의 생활에 있어 도서관이 무엇인가를 일반시민에게 이해를 촉진시키는 사회적 운동이라고 언급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10). 또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정의한 '도서관주간'의 뜻을 살펴보면 '도서관의 설립 및 도서관 이용자의 증대,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 제고, 도서관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하여 한국도서관협회가 1964년에 설정한 주간을 말하며, 시기는 매년 동일하게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1주일간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어 도서관주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도서관이 진행하는 수많은 문화행사와 축제가 있지만, 오랫동안 도서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려온 도서관주간은 2022년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 도서관계 최대 축제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도서관주간은 중요한 의미나 역사에 비해 그동안 도서관주간은 각급 도서관만의 자체 행사로 진행되어 전 국민 공감대 등을 형성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심효정, 노영희, 2022). 또한 오랜 역사에 비해 관련 연구나 이슈 검토, 토론회, 활성화 방안 모색 등도 거의 없었기에 다가올 법정주간을 기점으로 도서관주간을 전 국민과 함께하는 도서관계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준비할 제반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각급 도서관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한 점, 공공도서관 이외의 관중의 참여는 매우 저조했다는 점, 대국민 참여 행사로 기억되기에는 시민참여 활동이나 대국민 캠페인, 홍보 등이 부족했던 점 등을 인식하고 개선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심효정, 노영희, 2022). 이에 먼저 도서관주간 행사를 기획·실행하는 도서관 직원에 대한 인식조사가 현황파악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 대학, 전문, 학교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도서관주간 참여경험, 주취기관에 대한 만족도, 목적 도달성 정도, 법정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 추진 시 중심 고려사항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 도서관주간에 대한 인식정도와 운영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법정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계가 검토해야 할 내용을 공론화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도서관주간에 관한 도서관 직원 인식조사 연구가 도서관주간의 의미와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기초자료로 활용됨과 동시에 도서관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주간에 대한 도서관 직원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서관주간 관련 연구를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만수(2005)는 ‘도서관에 관한 표어 조사 분석: 도서관 주간을 중심으로’ 연구를 통해 표어의 특징, 유형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 도서관주간 표어를 조사 분석하여 표어의 간결성, 도치성, 반복성의 특징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유사한 주제로 연구한 임성관(2020)은 ‘도서관주간 표어의 내용 및 구조 분석’ 연구를 통해 도서관주간 표어 116개의 내용 및 구조를 분석해 ‘도서관’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한글 문자’로 이루어진 ‘문장형’이 대부분임을 밝히면서 효율적인 표어를 개발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표어의 간결성, 표어의 구조적 특징인 도치법, 대구법, 반복법 제안, 홍보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두 연구는 논문을 통해 표어의 구조적 특징으로 도치법, 대구법, 반복법을 공통적으로 밝혀냈다.

한국도서관협회(2010)는 ‘도서관문화 2010년 5월호 알림자료’에 도서관주간 취지문을 수록해 도서관주간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으며 도서관주간의 의의와 주요행사, 역대표어와 포스터를 소개했다.

한국도서관협회(2015)는 ‘도서관문화 2015년 5월호 특집’에 제51회 도서관주간을 맞아 도서관주간의 취지문, 도서관주간 주요행사, 역대표어, 역대포스터, 해외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도서관주간의 의미를 되새기고 특히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으로 지정하는 「도서관법」 개정

(안)이 추진 중에 있음을 언급하였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한국도서관협회(2022)는 홍보대행회사를 통해 각급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도서관주간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주간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도서관 이용 정도, 도서관주간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 도서관주간 홍보에 대한 충분 정도, 참여한 행사, 참여한 형태, 참여횟수, 참여한 도서관 이름 등을 설문조사 하였으나 조사 결과는 확인할 수 없다.

심효정, 노영희(2022)는 국내외 도서관주간 사례를 분석해 예산부족, 홍보 부족 등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도서관주간 활성화 방안을 운영주체 및 운영방식, 프로그램 구성, 홍보 부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면서 다양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명예 홍보대사 활용, 이색적인 기념행사, 전국 동시 캠페인, 아카이빙, 상시 홍보 채널 및 체계 구축 등 다양한 행사 운영방법을 언급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서관주간에 관련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향후 도서관주간에 관한 다양한 분석과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3. 연구방법

도서관주간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도서관주간 의의나 행사소개 등에 관한 사례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최근 도서관주간 만족도 이용자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설문 문항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주간 인식조사에 대한 선행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된 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

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법정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계가 검토해야 할 내용을 공론화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더욱 발전적인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 행사 진행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설문은 KSDC DB¹⁾를 통해 진행했으며, 설문 결과의 심층적 분석을 위해 도서관 직원 수, 근무경력, 관중 항목에서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3.1 설문대상 선정 및 진행 절차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주간에 대한 도서관 직원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에 근무하는 도서관 직원들을 설문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우선 2020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²⁾을 기준으로 등록된 도서관을 관중별로 구분한 후 목록을 확보하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 1,172개관, 대학도서관은 459개관, 전문도서관은 620개관, 학교도서관은 11,724개관의 목록이 확보되었다. 이중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은 약 10%를, 학교도서관은 전

체 관 수가 많아 다른 관중과의 비율을 고려해 약 2%를 Every 10th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 117개관, 대학도서관 46개관, 전문도서관 62개관, 학교도서관 234개관을 설문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설문은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수행하였으며 설문대상으로 선정된 도서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도서관주간 담당자를 포함한 수집 가능한 도서관 직원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한 후 이메일로 온라인 설문주소를 보내어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총 459건을 배포하였고 총 324건이 회수되어 약 70.6%의 회수율을 보였다(〈표 1〉 참조).

3.2 설문 내용 및 문항 구성

본 연구에서는 설문 문항 개발을 위해 도서관주간 관련 자료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설문 문항은 크게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일반사항, 도서관주간 인식 정도에 관한 의견, 법정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에 관한 의견 등 3개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영역별 세부 내용 및 문항 수는 〈표 2〉와 같다.

〈표 1〉 도서관주간 도서관 직원 인식 조사

구분	내용
일시	2022년 4월 21일 ~ 2022년 5월 01일
진행 방법	e-mail을 통한 온라인 설문 배포
대상자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 직원 총 459명
설문회신 건수	324명

1) <http://ksdcdb.kr>
 2) <https://www.libsta.go.kr>

〈표 2〉 설문 구조도

항목	내용	문항 수
일반사항	성별, 연령, 소속, 직급, 직종, 근무연수	8
도서관주간 인식 정도에 관한 의견	도서관주간 사업을 알게 된 경로	11
	도서관주간 사업 참여경험 횟수	
	도서관주간 사업 미참여 이유	
	도서관주간 사업 진행 시 주요 프로그램 현황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주간 행사지원 내용에 대한 만족도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주간 행사지원 내용의 불만족 이유	
	도서관주간 행사의 개선할 점	
	도서관주간의 목적 도달성에 대한 인식	
	도서관주일이 목적인 바를 달성한 경우 그 이유	
도서관주일이 목적인 바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		
도서관주간의 취지별 도달 정도		
향후 법정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에 관한 의견	『도서관법』 개정을 통한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 시행 사실에 대한 인식	5
	법 개정 이후 도서관주간 사업이 다양화·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지	
	도서관주일을 주도해야 할 주체에 관한 인식	
	향후 도서관의 날 진행 시 중심 고려사항에 관한 의견	
	도서관주일이 치중해야 할 프로그램	
	기타 의견	1
	계	25

4. 분석결과

4.1 일반사항

본 설문조사에는 관종별 도서관 직원 324명이 참여하였으며, 분석에 앞서 각 도서관 직원의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표 3〉 참조).

설문참여자 성별은 남성 21.0%, 여성 79.0%로 여성이 더 높은 비율로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연령은 30대 34%, 40대 30.2%, 20대 18.2%, 50대 16.7%, 60대 이상 0.9% 순으로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참여자가 근무하는 도서관 관종은 공공도서관

54%, 대학도서관 21.0%, 학교도서관 13.3%, 전문도서관 11.7%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은 서울이 44.1%로 가장 높고 인천·경기·강원권이 16.4%로 2번째로 높았다.

재직하고 있는 도서관의 직원 수는 1~2명이 28.7%, 6~10명 21.0%, 3~5명 14.2%, 21명 이상 15.4%, 11~15명 12.3% 16~20명 8.3% 순으로 나타났으며, 근무경력은 5년 이상 10년 미만과 20년 이상이 각각 17.9%와 1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설문참여자의 직급은 직원(사서)이 73.5%로 가장 많았고 부서장(부장, 과장, 팀장)이 10.8%로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소지한 사서 자격의 경우 2급정사서 자격을 소지한 응답자가 6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 일반사항

문항		N	%
성별	남성	68	21.0
	여성	256	79.0
연령	20대	59	18.2
	30대	110	34.0
	40대	98	30.2
	50대	54	16.7
	60대 이상	3	0.9
도서관의 관종	공공도서관	175	54.0
	대학도서관	68	21.0
	학교도서관	43	13.3
	전문도서관	38	11.7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	서울권	143	44.1
	부산·울산·경남권	33	10.2
	대구·경북권	21	6.5
	인천·경기·강원권	53	16.4
	광주·전북·전남·제주권	41	12.7
	대전·세종·충북·충남권	33	10.2
채직하고 있는 도서관 직원 수	1명~2명	93	28.7
	3명~5명	46	14.2
	6명~10명	68	21.0
	11명~15명	40	12.3
	16명~20명	27	8.3
	21명 이상	50	15.4
근무경력	1년 미만	31	9.6
	1년 이상~3년 미만	54	16.7
	3년 이상~5년 미만	34	10.5
	5년 이상~10년 미만	58	17.9
	10년 이상~15년 미만	46	14.2
	15년 이상~20년 미만	45	13.9
	20년 이상	56	17.3
직급	직원(사서)	238	73.5
	부서장(부장, 과장, 팀장 등)	35	10.8
	관장	19	5.9
	기타	32	9.9
소지한 사서자격 (복수응답)	1급정사서	37	9.8
	2급정사서	229	60.6
	준사서	34	9.0
	사서교사	54	14.3
	없음	24	6.4
계		324	100

4.2 도서관주간에 대한 인식

먼저 설문조사에 참여한 관중별 도서관 직원들의 도서관주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도서관주간 사업을 알게 된 경로, 사업 참여경험 횟수, 사업 미참여 이유, 사업 진행 시 주요 프로그램 현황,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주간 사업 행사지원 내용에 대한 만족도,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주간 사업 행사지원 내용의 불만족 이유, 도서관주간 행사의 개선할 점, 도서관주간의 목적 도달성에 대한 인식, 도서관주간이 목적인 바를 달성한 경우 그 이유, 도서관주간이 목적인 바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 도서관주간의 취지별 도달 정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4.2.1 도서관주간 사업을 알게 된 경로

도서관주간 사업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해 분석한 결과, 사업 안내 공문을 통해 알게 된 도서관 직원이 62.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17.0%, 기타 10.2%, 인터넷 검색 8.0%, 언론사 홍보 2.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자의 경우 도서관 업무를 진행하면서 도서관 주간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의견과 대학 전공 과정 진행 중 알게 되었다는 의견이 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사업 안내 공문 외 나머지 경로에서 사업을 알게 된 경우가 적어 도서관주간에 대한 홍보가 현재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언론사 및 인터넷에서 도서관주간이 검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표 4〉 참조).

4.2.2 도서관주간 사업 참여경험 횟수

도서관주간 사업 참여경험 횟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사업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도서관 관계자가 33.6%로 가장 많았으며, 1~2회 참여자 23.5%, 3~5회 16.0%, 11회 이상 16.0% 등으로 도서관주간에 참여를 해본 적 없거나 1~2회 소수 참여해본 관계자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도서관 직원 수와 도서관주간 사업 참여경험 횟수를 교차 분석한 결과, 도서관 직원 수가 1~2명인 도서관과 3~5명인 도서관의 경우 0회가 가장 많았으며, 6~10명과 11명~15명인 경우 1~2회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6~20명과 21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의 경우 11회 이상 참여해 본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도서관 직원 수가 많아질수록 도서관주간에 참여해 본 경험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도서관 직

〈표 4〉 도서관주간 사업을 알게 된 경로

문항	N	%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	55	17.0
도서관주간 사업 안내 공문	201	62.0
언론사 홍보	9	2.8
인터넷 검색	26	8.0
기타	33	10.2
계	324	100

〈표 5〉 도서관주간 사업 참여경험 횟수

문항	N	%
0회	109	33.6
1회~2회	76	23.5
3회~5회	53	16.4
6회~10회	32	9.9
11회 이상	52	16.0
기타	2	0.6
계	324	100

원 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도서관주간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6〉 참조).

도서관 근무경력과 사업 참여경험 횟수를 교차분석 한 결과, 경력 1년 미만 사서의 경우 도서관주간에 참여해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1년 이상~3년 미만 1~2회, 3년 이상~5년 미만 0회, 5년 이상~10년 미만 3~5회, 10년 이상~15년 미만 6~10회, 15년 이상~20년 미만 11회 이상, 20년 이상 11회 이상 참여해본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근무경력이 많아질수록 도서관주간 사업 참여횟수 또한 늘어나고 있지만 도서관주간에 0회 참여한 비율이 모든 경력 구간에서 20% 이상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도서관 직원 수가 많아지면 도서관주간 사업 참여경험 횟수가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과 비교되며, 이러한

비교를 통해 도서관 경력보다 도서관 직원 수가 도서관주간 사업 참여경험에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표 7〉 참조).

4.2.3 도서관주간 사업 미참여 이유

도서관주간 사업에 미참여한 이유에 대해 분석해보면, 공공도서관 중심이라고 생각해서와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행사에 참여할 여유가 없어서 25.0%, 참여할 필요가 없어서 11.8%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서관주간 사업의 경우 공공도서관 외 모든 도서관이 참여할 수 있지만 공공도서관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거나 참여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은 도서관주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표 8〉 참조).

〈표 6〉 도서관 직원 수 기반 도서관주간 사업 참여경험 횟수

구분	0회		1회~2회		3회~5회		6회~10회		11회 이상		기타	
	N	%	N	%	N	%	N	%	N	%	N	%
1명~2명	55	50.5	16	21.1	12	22.6	3	9.4	7	13.5	0	28.7
3명~5명	16	14.7	14	18.4	8	15.1	3	9.4	5	9.6	0	14.2
6명~10명	16	14.7	23	30.3	10	18.9	9	28.1	9	17.3	1	21.0
11명~15명	8	7.3	10	13.2	5	9.4	8	25.0	9	17.3	0	12.4
16명~20명	5	4.6	5	6.6	6	11.3	3	9.4	7	13.5	1	8.3
21명 이상	9	8.3	8	10.5	12	22.6	6	18.8	15	28.9	0	15.4

〈표 7〉 도서관 경력 기반 도서관주간 사업 참여경험 횟수

구분	0회		1회-2회		3회-5회		6회-10회		11회 이상		기타	
	N	%	N	%	N	%	N	%	N	%	N	%
1년 미만	20	64.5	11	35.5	0	0	0	0	0	0	0	0
1년 이상~3년 미만	22	40.7	26	48.2	4	7.4	1	1.9	1	1.9	0	0
3년 이상~5년 미만	16	47.1	7	20.6	11	32.3	0	0	0	0	0	0
5년 이상~10년 미만	14	24.1	15	25.9	16	27.6	10	17.2	2	3.5	1	1.7
10년 이상~15년 미만	11	23.9	2	4.4	8	17.4	13	28.3	12	26.1	0	0
15년 이상~20년 미만	10	22.2	8	17.8	6	13.3	7	15.6	13	28.9	1	2.2
20년 이상	16	28.6	7	12.5	8	14.3	1	1.8	24	42.9	0	0

〈표 8〉 도서관주간 사업 미참여 이유(복수응답)

문항	N	%
공공도서관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38	26.4
행사에 참여할 여유가 없어서	36	25.0
참여할 필요가 없어서	17	11.8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서	38	26.4
기타	15	10.4

4.2.4 도서관주간 사업 진행 시 주요 프로그램 현황

도서관주간 사업 진행 시 주요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시회 및 강연회 등 문화 행사(32.2%), 도서관주간 홍보(31.9%), 도서관 활동 소재 각종 대회(12.7%)가 도서관주간 사업 진행 주요 프로그램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와의 만남(9.0%), 각종 시상식(4.4%), 지역도서관 연계(3.3%), 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사(3.0%), 가두 캠페인(2.4%), 기타(1.1%) 등이 소수 나타났다(〈표 9〉 참조).

4.2.5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주간 행사지원 내용에 대한 만족도

도서관주간 사업 행사지원 내용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만족하고 있는 도서관 관계자가 17.9%, 만족하지 않는 도서관 관계자

가 24.4%로 평균 2.93으로 만족하지 않는 관계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도서관 직원 수에 따른 도서관주간 행사지원 만족도 교차분석 결과, 직원 수가 6명~10명일 때 평균 3.07로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3명~5명 3.00, 21명 이상 2.90, 1명~2명 2.89, 11명~15명 2.78 순으로 만족하고 있다. 대체로 평균 3점 이하인 것으로 보아 대체로 만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진행한 도서관주간 참여횟수의 교차분석과 비교했을 때, 16~20명과 21명 이상이 근무하는 도서관이 가장 많이 도서관주간 행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도서관주간 행사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저조한 것으로 보아 도서관주간 행사지원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도서관 직원 수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표 11〉 참조).

〈표 9〉 도서관주간 사업 진행 시 주요 프로그램 현황(복수응답)

문항	N	%
도서관주간 홍보	173	31.9
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사	16	3.0
가두 캠페인	13	2.4
도서관 활동 소재 각종 대회	69	12.7
각종 시상식	24	4.4
이용자와의 만남	49	9.0
전시회 및 강연회 등 문화행사	175	32.2
지역 도서관 연계	18	3.3
기타	6	1.10

〈표 10〉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주간 행사지원 내용에 대한 만족도

문항	N	%	M	Std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9	2.8	2.93	0.753
만족하지 않는다	70	21.6		
보통	187	57.7		
만족하는 편이다	51	15.7		
매우 만족한다	7	2.2		
계	324	100		

〈표 11〉 도서관 직원 수 기반 도서관주간 행사지원 내용에 대한 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M	Std	F	P
	N	%	N	%	N	%	N	%	N	%				
1명~2명	3	3.2	22	23.7	53	57.0	12	12.7	3	3.2	2.89	0.787	1.527	0.194
3명~5명	0	0.0	11	23.9	25	54.4	9	19.6	1	2.2	3.00	0.730		
6명~10명	1	1.5	11	16.2	39	53.4	16	23.5	1	1.5	3.07	0.719		
11명~15명	1	2.5	10	25.0	24	60.0	5	12.5	0	0.0	2.83	0.675		
16명~20명	1	3.7	6	22.2	18	66.7	2	7.4	0	0.0	2.78	0.641		
21명 이상	9	2.8	70	21.6	187	57.7	51	15.7	7	2.2	2.90	0.863		

도서관 경력과 도서관주간 행사지원 만족도 교차분석 결과, 경력 1년 미만(3.29), 3년 이상~5년 미만(3.12)은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1년 이상~3년 미만 (2.83), 5년 이상~10년 미만(2.85), 10년 이상~15년 미만(2.83), 15년 이상~20년 미만(2.80), 20

년 이상(2.98)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4.2.6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주간 행사지원 내용의 불만족 이유

도서관주간 사업 행사지원 내용에 대해 만족

〈표 12〉 도서관 경력 기반 도서관주간 행사지원 내용에 대한 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M	Std	F	P
	N	%	N	%	N	%	N	%	N	%				
1년 미만	0	0.0	2	6.5	20	64.5	7	22.6	2	6.5	3.29	0.693	2.821	0.011
1년 이상~3년 미만	0	0.0	15	27.8	33	61.1	6	11.1	0	0.0	2.83	0.607		
3년 이상~5년 미만	2	5.9	4	11.8	17	50.0	10	29.4	1	2.9	3.12	0.880		
5년 이상~10년 미만	2	3.5	16	27.6	30	51.7	9	15.5	1	1.7	2.85	0.790		
10년 이상~15년 미만	3	6.5	11	23.9	24	52.2	7	15.2	1	2.2	2.83	0.851		
15년 이상~20년 미만	2	0.0	13	28.9	23	51.1	6	13.3	1	2.2	2.80	0.815		
20년 이상	0	0.0	9	16.1	40	71.4	6	10.7	1	1.8	2.98	0.587		

〈표 13〉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주간 행사지원 내용의 불만족 이유

문항	N	%
지원해주는 내용과 정보가 거의 없어서	38	48.1
지원해주는 내용과 정보를 몰라서	22	27.8
관심이 없어서	1	1.3
매년 같은 내용이어서	14	17.7
기타	4	5.1
계	324	100

하지 않는 이유는 지원해주는 내용과 정보가 거의 없어서 48.1%, 지원해주는 내용과 정보를 몰라서 27.8%, 매년 같은 내용이어서 17.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서관주간 행사에 대한 지원 내용 및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홍보함으로써 도서관주간 행사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표 13〉 참조).

4.2.7 도서관주간 행사의 개선할 점

도서관주간 행사의 개선할 점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 및 안내

(41.9%)와 행사 구성 및 내용(39.0%)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외 행사 장소, 편의시설 등 시설/설비 9.0%, 행사 날짜/요일/시간 등의 행사 일정 7.3%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현재 도서관주간의 가장 큰 개선사항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가장 우선으로 들고 있다. 도서관 직원들조차 도서관주간 행사 안내 공문을 제외하면 도서관주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우며, 이는 행사 적극 참여의 가장 큰 걸림돌로 해석할 수 있다(〈표 14〉 참조).

〈표 14〉 도서관주간 행사의 개선할 점(복수응답)

문항	N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217	41.9
행사 구성 및 내용(다양성, 내용 충실도, 흥미도 등)	202	39.0
행사 장소, 편의시설 등 시설/설비	47	9.0
행사 날짜/요일/시간 등의 행사 일정	38	7.3
기타	14	2.7

4.2.8 도서관주간의 목적 도달성에 대한 인식

도서관주간의 목적 도달성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계자가 22.5%, 목적에 도달했다는 관계자가 28.4%로 도서관주간 행사 만족도와 반대로 목적에 도달했다고 인식하는 관계자가 평균 3.03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도서관 직원 수와 도서관주간의 목적 도달성에 대해 교차분석을 진행한 결과 6명~10명이 근무하는 도서관에서 평균 3.28로 가장 목적에 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1명 이상 3.12, 3~6명과 16명~20명 3.04, 1명~2명 2.91, 11명~15명 2.78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직원 수와 도서관주간 참여횟수, 행사 진행 만족도, 목적 도달성에 대한 인식을 모두 비교했을 때 도서관 직원 수가 1~2명으로 적은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주간에 잘 참여하지 못하며, 도서관주간 지원에 대한 만족도

와 목적 도달성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명~15명이 근무하는 도서관의 경우에도 도서관주간에 잘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만족도 및 목적 도달성 모두 일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표 16〉 참조).

도서관 경력과 도서관주간 목적 도달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경력 1년 미만(3.13), 3년 이상~5년 미만(3.21), 10년 이상~15년 미만(3.13), 20년 이상(3.07)은 비교적 목적에 도달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나머지 1년 이상~3년 미만(2.98), 5년 이상~10년 미만(2.98), 15년 이상~20년 미만(2.82)은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표 17〉 참조).

도서관주간 목적 도달성에 대한 도서관 관종별 교차분석 결과, 공공도서관(3.11)은 도서관주일이 목적에 도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대학도서관(2.99), 전문도서관(2.97), 학교

〈표 15〉 도서관주간의 목적 도달성에 대한 인식

문항	N	%	M	Std
전혀 도달 못 함	12	3.7	3.03	0.811
대체로 도달 못 함	61	18.8		
보통	159	49.1		
대체로 도달	88	27.2		
매우 도달	4	1.2		
계	324	100		

〈표 16〉 도서관 직원 수 기반 도서관주간의 목적 도달성에 대한 인식

구분	전혀 도달 못함		대체로 도달 못함		보통		대체로 도달		매우 도달		M	Std	F	P
	N	%	N	%	N	%	N	%	N	%				
1명~2명	1	8.3	25	41.0	49	30.8	17	19.3	1	25.0	2.91	0.732	3.836	0.002
3명~5명	1	8.3	6	9.8	30	18.9	8	9.1	1	25.0	3.04	0.698		
6명~10명	0	0.0	8	13.1	34	21.4	25	28.4	1	25.0	3.28	0.688		
11명~15명	6	50.0	8	13.1	15	9.4	11	12.5	0	0.0	2.78	1.025		
16명~20명	1	8.3	7	11.5	9	5.7	10	11.4	0	0.0	3.04	0.898		
21명 이상	3	25.0	7	11.5	22	13.8	17	19.3	1	25.0	3.12	0.895		

〈표 17〉 도서관 경력 기반 도서관주간의 목적 도달성에 대한 인식

구분	전혀 도달 못함		대체로 도달 못함		보통		대체로 도달		매우 도달		M	Std	F	P
	N	%	N	%	N	%	N	%	N	%				
1년 미만	0	0.0	3	9.7	72	71.0	5	16.1	1	3.2	3.13	0.619	1.258	0.277
1년 이상~3년 미만	2	3.7	12	22.2	25	46.3	15	27.8	0	0.0	2.98	0.812		
3년 이상~5년 미만	1	2.9	3	8.8	18	52.9	12	35.3	0	0.0	3.21	0.729		
5년 이상~10년 미만	3	5.2	13	22.4	25	43.1	16	27.6	1	1.7	2.98	0.888		
10년 이상~15년 미만	2	4.4	9	19.6	17	37.0	17	17.0	1	2.2	3.13	0.909		
15년 이상~20년 미만	3	6.7	10	22.2	25	55.6	6	13.3	1	2.2	2.82	0.834		
20년 이상	1	1.8	11	19.6	27	48.2	17	30.4	0	0.0	3.07	0.759		

도서관(2.84)은 모두 도서관주간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표 8〉 도서관주간 사업 미참여 이유에서 공공도서관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것과 비교했을 때 도서관 직원들이 도서관주간 사업이 공공도서관 위주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관공의 도서관은 도서관주간 사업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8〉 참조).

4.2.9 도서관주간이 목적인 바를 달성한 경우 그 이유

도서관주간이 목적인 바를 달성한 이유에 대해 도서관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29.0%, 추진한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서 21.6%, 프로그램 담당자의 의지와 역량이 좋아서 19.5%, 이용자와 일상적으로 소통이 잘되어서 12.6%,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자원(예산이나 공간 등)이 충분해서 6.8%, 다른 도서관들과 잘 협력해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6.8%, 주춧기관의 지도

〈표 18〉 도서관 관종별 도서관주간의 목적 도달성에 대한 인식

구분	전혀 도달 못함		대체로 도달 못함		보통		대체로 도달		매우 도달		M	Std	F	P
	N	%	N	%	N	%	N	%	N	%				
공공도서관	9	5.3	25	14.8	80	45.6	59	33.3	2	1.2	3.11	0.857	1.335	0.249
대학도서관	2	2.9	15	22.1	34	50.0	16	23.5	1	1.5	2.99	0.801		
학교도서관	0	0.0	15	34.9	21	48.8	6	14.0	0	0.0	2.84	0.754		
전문도서관	1	2.9	6	15.8	24	63.2	7	18.4	0	0.0	2.97	0.696		

력과 지원이 충분해서 2.6% 순으로 나타났다. 목적인 바를 달성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주최기관의 지원, 타 도서관들과의 협력,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예산 등의 자원이 부족했다고 인식하고 있어 도서관주간 행사추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주최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충분한 예산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표 19〉 참조).

4.2.10 도서관주간이 목적인 바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

도서관주간의 목적인 바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도서관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담당부서/직원만의 일로 추진되어서 27.3%,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자원(예산이나 공

간 등)이 부족해서 21.3%, 주최기관의 지도력과 지원이 부족해서 14.0%, 이용자와 일상적으로 소통이 잘되지 않고 있어서 12.7%, 프로그램 담당자의 의지와 역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4.0%, 추진한 프로그램 내용이 좋지 못해서 3.3%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주간이 목적인 바를 달성하거나 달성하지 못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모두 도서관 인원의 행사 준비 참여로 나타난다. 이는 현재 도서관주간 행사를 담당부서 와 소수 직원의 업무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도서관주간 행사 진행 시 도서관 내부적 협력을 통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행사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표 20〉 참조).

〈표 19〉 도서관주간이 목적인 바를 달성한 경우 그 이유(복수응답)

문항	N	%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자원(예산이나 공간 등)이 충분해서	16	6.8
프로그램 담당자의 의지와 역량이 좋아서	37	19.5
도서관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55	29.0
이용자와 일상적으로 소통이 잘 되어서	24	12.6
추진한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서	41	21.6
다른 도서관들과 잘 협력해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13	6.8
주최기관의 지도력과 지원이 충분해서	5	2.6
기타	2	1.1

〈표 20〉 도서관주간이 목적인 바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복수응답)

문항	N	%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자원(예산이나 공간 등)이 부족해서	32	21.3
프로그램 담당자의 의지와 역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6	4.0
도서관 모두가 참여하지 못하고 담당부서/직원만의 일로 추진되어서	41	27.3
이용자들과 일상적으로 소통이 잘되지 않고 있어서	19	12.7
추진한 프로그램 내용이 좋지 못해서	5	3.3
다른 도서관들과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19	12.7
주최기관의 지도력과 지원이 부족해서	21	14.0
기타	7	4.7

4.2.11 도서관주간의 취지별 도달 정도

도서관주간 취지별 도달 정도에 대해 분석결과,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알려 국민들의 활발한 도서관 이용을 도모하는 홍보의 장 마련(3.23%)과 범국민 독서 활성화 캠페인의 토대 마련(3.2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모든 항목의 평균이 3.0%를 넘어 도서관주간의 취지에 모두 도달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표 21〉 참조).

4.3 향후 법정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에 대한 의견

다음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도서관 직원들

의 향후 법정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에 대한 의견조사를 위해 『도서관법』 개정을 통한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 시행 사실에 대한 인식, 법 개정 이후 도서관주간 행사의 다양화·활성화 기대도, 도서관주간을 주도해야 할 주체에 관한 인식, 향후 도서관의 날 진행 시 중심고려사항에 관한 의견, 도서관주간이 치중해야 할 프로그램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4.3.1 도서관법 개정을 통한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 시행 사실에 대한 인식

『도서관법』 개정을 통한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 시행 사실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전혀 모르고 있는 관계자가 57.1%로 가장 많았으며,

〈표 21〉 도서관주간의 취지별 도달 정도

문항	전혀 도달 못함		대체로 도달 못함		보통		대체로 도달		매우 도달		M	Std
	N	%	N	%	N	%	N	%	N	%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알려 국민들의 활발한 도서관 이용을 도모하는 홍보의 장 마련	10	3.1	57	17.6	121	37.3	122	37.7	14		
도서관인들과 국민들의 만남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의 장 마련	21	6.5	63	19.4	143	44.1	86	26.5	11	3.4	3.01	0.926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도서관 봉사체제 모색 및 새로운 도서관 문화창출의 기회 마련을 위한 토론의 장 형성	13	4.0	71	21.9	144	44.4	85	26.2	11	3.4	3.03	0.883
범국민 독서 활성화 캠페인의 토대 마련	8	2.5	57	17.6	130	40.1	117	36.1	12	3.7	3.21	0.862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3.3%, 잘 알고 있다 9.6%로 대체로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도서관주간 행사 안내나 관련 홍보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는 했지만,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표 22〉 참조).

4.3.2 법 개정 이후 도서관주간 행사가 다양화·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지

「도서관법」 개정 이후 도서관주간 행사의 다양화·활성화에 대한 기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11.2%, 그렇다는 의견이 60.1% 및 평균 3.59로 대체로 도서관주간 행사가 다양화·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23〉 참조).

4.3.3 도서관주간을 주도해야 할 주체에 관한 인식

도서관주간을 주도할 주체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공동주체(정부, 지방자치단체, 도서관계)

가 5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서관계(한국도서관협회) 26.9%, 정부 16.4%, 지방자치단체 2.5%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부터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도서관협회 행사추진에 홍보 등의 지원을 통해 함께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협력 관계가 지속,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표 24〉 참조).

도서관주간을 주도할 주체에 대한 인식을 관종별로 교차분석 해서 살펴보면, 모든 관종의 도서관 모두 공동주체로 도서관주간을 주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공동주체를 제외하고는 도서관계(한국도서관협회)가 도서관주간을 주도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응답하였다(〈표 25〉 참조).

4.3.4 향후 도서관의 날 진행 시 중심 고려사항에 관한 의견

향후 도서관의 날 진행 시 중심 고려사항에 관한 의견으로 도서관주간 행사를 위한 충분한 지

〈표 22〉 도서관법 개정을 통한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 시행에 관한 인식

문항	N	%
전혀 몰랐다	185	57.1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08	33.3
잘 알고 있다	31	9.6
계	324	100

〈표 23〉 법 개정 이후 도서관주간 행사가 다양화·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지

문항	N	%	M	Std
매우 그렇지 않다	7	2.2	3.59	0.891
그렇지 않다	29	9.0		
보통	93	28.7		
그렇다	156	48.1		
매우 그렇다	39	12.0		
계	324	100		

〈표 24〉 도서관주간을 주도해야 할 주체에 관한 인식

문항	N	%
정부	53	16.4
지방자치단체	8	2.5
도서관계(한국도서관협회)	87	26.9
공동주체(정부, 지방자치단체, 도서관계)	174	53.7
기타	2	0.6
계	324	100

〈표 25〉 도서관 관종별 도서관주간을 주도해야 할 주체에 관한 인식

구분	정부		지방자치단체		도서관계 (한국도서관협회)		공동주체 (정부, 지방자치 단체, 도서관계)		기타	
	N	%	N	%	N	%	N	%	N	%
공공도서관	29	16.6	4	2.3	50	28.6	91	52	1	0.6
대학도서관	13	19.1	3	4.4	17	25.0	35	51.5	0	0
학교도서관	7	16.3	1	2.3	11	25.6	24	55.8	0	0
전문도서관	4	10.5	0	0	9	23.7	24	63.2	1	2.6

원(33.5%), 도서관에 대한 국가적 홍보(31.3%), 도서관 휴관 등을 포함한 도서관인에 대한 격려와 위안(23.9%) 등을 중심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해 도서관주간을 위한 충분한 지원 및 홍보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표 26〉 참조).

4.3.5 도서관주간이 치중해야 할 프로그램
도서관주간이 치중해야 할 프로그램으로는

홍보 24.1%, 전시회 및 강연회 등 문화행사 22.6%, 지역 도서관 연계 13.6%, 도서관 활동 소재 각종 대회 13.3%, 이용자와의 만남 12.9%, 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사 6.4%, 각종 시상식 4.4%, 가두 캠페인 2.0%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주간 홍보와 문화행사에 대해 가장 치중해야 한다고 답하였으며, 가두 캠페인과 각종 시상식에 대한 선호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7〉 참조).

〈표 26〉 향후 도서관의 날 진행 시 중심 고려사항에 관한 의견(복수응답)

문항	N	%
도서관에 대한 국가적인 홍보	200	31.3
도서관인에 대한 정부 포상	70	11.0
도서관 휴관 등을 포함한 도서관인에 대한 격려와 위안	153	23.9
도서관주간 행사를 위한 충분한 지원	214	33.5
기타	2	0.3

〈표 27〉 도서관주간이 치중해야 할 프로그램(복수응답)

문항	N	%
도서관주간 홍보	204	24.1
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사	54	6.4
가두 캠페인	17	2.0
도서관 활동 소재 각종 대회	112	13.3
각종 시상식	37	4.4
이용자와의 만남	109	12.9
전시회 및 강연회 등 문화행사	191	22.6
지역 도서관 연계	115	13.6
기타	6	0.7

4.4 기타 의견

설문참여자의 기타 의견을 분석한 결과,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주간의 적극적 홍보(45.8%)에 대해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했으며, 도서관 및 도서관 사서에 대한 인식변화 관련 행사(캠페인) 필요 23.7%, 도서관주간 및 도서관의 날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 15.3%, 공공도서관 위주가 아닌 다양한 관종의 상황 고려 5.1%,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 행사의 명확한 구분 필요 3.4%, 다양하고 기발한 행사 아이디어 수렴 및 도입 3.4%, 도서관주간에 대한 조기 공문 공지 3.4% 순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

시했다.

위에서 자주 분석된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의 적극적 홍보를 제외하면, 도서관과 도서관 사서에 대한 저조한 인식 및 처우 개선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주간 행사 때 도서관 인식 및 사서 처우 개선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서관주간과 도서관의 날 행사에 대한 지원, 특히 예산지원이 부족하여 행사의 준비가 어렵고 사서에게 행사 준비에 대한 업무가 과중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표 28〉 참조).

〈표 28〉 기타 의견

문항	N	%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주간의 적극적 홍보 필요	27	45.8
도서관 및 도서관 사서에 대한 인식변화 관련 행사(캠페인) 필요	14	23.7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지원이 없어 사서의 부담 과중)	9	15.3
공공도서관 위주가 아닌 다양한 관종의 상황 고려 필요	3	5.1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 행사의 명확한 구분 필요	2	3.4
다양하고 기발한 행사 아이디어의 수렴 및 도입 필요	2	3.4
도서관주간에 대한 조기 공문 공지 필요	2	3.4
계	59	100

5. 논의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주간 행사 참여도, 주최기관에 대한 만족도, 목적 도달성 정도, 향후 행사추진 시 중심 고려사항 등에 대한 도서관 직원의 인식조사를 통해 향후 법정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계가 검토해야 할 내용을 공론화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설문분석 결과에서 제기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도출된 논의점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주간 사업을 알게 된 경로가 사업 안내 공문을 통해 알게 된 도서관 직원이 62.0%로 많은 비율로 조사되었고, 참여경험 회수가 한 번도 없는 도서관 직원이 33.6%가 될 정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본 연구는 전 관종의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기에 그동안 공공도서관 위주로 도서관주간 사업이 추진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타 관종의 참여가 미흡했던 만큼 한 번도 참여해본 적이 없는 도서관 직원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도서관주간 행사가 도서관계 내부에서도 충분히 호응을 얻지 못하거나 참여할 여건이 미비하다고도 볼 수 있다.

향후 도서관주간 사업의 활성화와 다양한 관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업 안내 공문을 통한 방식뿐 아니라 언론사 홍보나 SNS 등을 포함한 각종 인터넷이나 각종 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의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도서관 및 타 관종과의 연계 협력 방안, 관종별협의회에 도서관주간 추

진위원회를 구성해 한국도서관협회 등과 협력하는 방안 등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서관 직원 수와 도서관주간 사업 참여경험 횟수를 교차분석했을 때 도서관 직원 수가 1~2명인 도서관에 비해 16명~2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의 경우 행사 참여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사업 미참여 이유에서 행사에 참여할 여유가 없어서라는 답변이 많았던 부분과 목적인 바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로 도서관 모두가 참여하지 못하고 담당 부서나 직원만의 일로 추진되어서라는 답변과 연관해 생각할 수 있다. 직원 수가 적은 경우 행사 준비 등에 업무 과부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좋은 행사기획이 있더라도 결국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직원이므로 행사추진 인적 구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담당 인력이 소수일 경우 도서관 전체가 함께 행사추진 준비를 하거나 인근 다른 도서관 및 타 관종도서관,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도서관주간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정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에 관한 의견조사에서는 2023년부터 법정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이 시행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도서관 직원이 57.1%나 되어 도서관주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도서관주간에 대해 도서관계 조차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에 도서관 직원의 인식 개선도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법 개정 이후에 도서관주간 행사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도서관의 날

진행 시 중심 고려사항에 관한 의견으로 도서관주간 행사를 위한 충분한 지원, 도서관에 대한 국가적 홍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통해 그동안 도서관주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미흡했고 대국민 행사로 인식되기에는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 법정 도서관주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사지원을 위한 예산지원, 대국민 홍보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적극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번 도서관주간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1964년부터 시행되어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진 도서관 대표 행사인 도서관주간에 대해 도서관 직원들조차 인식이 부족한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도서관주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도서관계 지원사항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도서관주간 행사 참여도, 주최기관에 대한 만족도, 목적 도달성 정도, 향후 행사추진 시 중심 고려사항 등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정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계가 검토해야 할 내용을 공론화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도서관주간에 대한 인식 설문에서는 도서관주간을 알게 된 경로로 사업 안내 공문을 통해서가 62.0%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 참여횟수는 참여해 본 적이 없거나 1~2회 소수 참여해본 직원이 57.1%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 미참

여 이유에서는 공공도서관 중심이라고 생각하거나 행사에 참여할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51.4%로 나타났다.

둘째, 주최기관의 행사지원 내용에 대한 만족도 부분에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원 내용의 불만족 이유로는 지원해주는 내용과 정보가 거의 없어서가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목적 도달성에 대한 인식은 만족도하고는 다르게 목적에 도달했다고 인식하는 도서관 직원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목적한 바를 달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서관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와 추진한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서, 프로그램 담당자의 의지와 역량이 좋아서 등으로 나타났다. 목적한 바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로는 도서관 모두가 참여하지 못하고 담당 부서나 직원만의 일로 추진되거나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자원(예산이나 공간 등)이 부족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교차분석은 도서관 직원 수, 근무경력, 관중 항목에서 사업 참여횟수, 행사지원 만족도, 목적 도달성, 행사주도 주체에 관한 항목에 대해 진행했다. 그 결과 도서관 직원 수와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도서관주간 사업 참여경험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서관 경력보다는 도서관 직원 수가 사업 참여경험에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서관 직원 수나 도서관 경력에 따른 행사지원 만족도와 목적 도달성 부분은 모두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관중별 목적 도달성은 공공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관중이 도서관주간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도서관 관중별 도서관주간을 주도해야 할 주체에 대해서도 모든 관중이 정부, 지

방자치단체, 도서관계 공동주체로 진행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향후 법정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에 대한 의견 설문에서는 「도서관법」 개정을 통한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 시행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응답한 도서관 직원이 57.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법 개정 이후 행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직원이 48.1%로 높게 나타났다. 주도해야 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공동주체(정부, 지방자치단체, 도서관계)가 53.7%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행사추진 시 고려해야 할 중심 사항에 대해서는 도서관에 대한 국가적 홍보와 행사를 위한 충분한 지원에 대한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치중해야 할 프로그램은 홍보, 문화행사, 지역도서관 연계 등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기타 의견에서는 도서관주간의 적극적 홍보와 도서관 및 도서관 사서에 대한 인식 변화 관련 행사 필요, 도서관주간 및 도서관의 날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 등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주간에 대한 관종별 도서관 직원의 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행사 참여도, 주최기관에 대한 만족도, 목적 도달성 정도, 법정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 추진 시 중심 고려사항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법정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계가 검토해야 할 내용을 공론화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향후 도서관주간 활성화를 위해 내·외부적 관점에서 정책 결정자, 이용자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 및 만족도 조사 등의 연구도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더불어 편성 예산, 투입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등도 필요하다. 또한 매년 도서관, 출판, 서점계에서 진행되는 4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9월 독서의 달, 11월 11일 서점의 날 등 도서관주간과 유사한 행사 등을 비교 분석하는 조사·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도서관법, 법률 제18763호.
 심효정, 노영희 (2022). 도서관주간의 비교 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2), 157-177. <https://doi.org/10.4275/KSLIS.2022.56.2.157>
 이만수 (2005). 도서관에 관한 표어 조사 분석: 도서관 주간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3), 169-188.
 임성관 (2020). 도서관 주간 표어의 내용 및 구조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3), 53-80. <https://doi.org/10.16981/kliss.51.3.202009.53>

한국도서관협회 (2010). 도서관주간의 의의와 역사. 도서관문화, 51(5), 76-80.

한국도서관협회 (2015). 제51회 도서관주간. 도서관문화, 56(3), 16-18.

한국도서관협회 (2022. 4. 15.). 제58회 도서관주간 만족도 설문조사 안내.

출처: https://www.kla.kr/jsp/libraryweek/board_detail.php?b_id=notice&bseq=450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Korea Library Association (2010). The significance and history of library week. Doseogwanmunhwa, 51(5), 76-80.

Korea Library Association (2015). 51st library week. Doseogwanmunhwa, 56(3), 16-18.

Korea Library Association (2022, April 15). The 58th Library Week Satisfaction Survey. Available: https://www.kla.kr/jsp/libraryweek/board_detail.php?b_id=notice&bseq=450

Lee, M. S. (2005). A study on the motto of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6(3), 169-188.

Library Law. No. 18763.

Lim, S. K. (2020). Analysis of content and structure of library week slogan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6(3), 169-188.

<https://doi.org/10.16981/kliss.51.3.202009.53>

Sim, H. J. & Noh, Y. H. (2022). A study on comparative analysis and activation plan of library week.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6(2), 157-177.

<https://doi.org/10.4275/KSLIS.2022.56.2.157>